

# 중국 에너지시찰단 내한 방문기

## “한국과 중국은 ESCO兄弟之間, 배울건 배우겠다”



취재 ■ 이선호 w3master@energycenter.co.kr



1. 국내 ESCO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최석곤 회장
2. 푸청파 (扶承波) 북경시 심원에너지절약기술공사 프로젝트 담당
3. 니에지보(攝繼波) 북경시 에너지절약감사센터 엔지니어
4. 오징웬(吳景元) 북경시 경제위원회 에너지절약판공실 주임
5. 쟁우이칭(張瑞靑) 북경시 계획위원회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에서도 최근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달 15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ESCO기업들의 관심 또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14일부터 20일까지 6박7일 동안 방한한 중국의 에너지 절약 시찰단을 통해 알려졌다. 중국은 북경시 경제위원회 에너지절약판공실 오징웬(吳景元) 주임(과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시찰단을 한국의 ESCO 사업 현황 파악과 한·중 양국간 에너지절약분야 협력가능성 타진을 목적으로 파견했다.

이번 중국 시찰단은 일주일 동안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ESCO협회 및 ESCO기업인 삼성에버랜드, EPS코리아 등을 찾아



중국 방문단이 ESCO협회 및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개를 받고있는 모습(1999.11.15 삼성화재빌딩 5층 회의실)

ESCO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우수 에너지절약사례 현장으로 손꼽히는 (주)새한 구미공장,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포항제철 등지를 견학하고 ESCO 투자사례의 성과에 대해서 들었다.

중국 방문단은 지난 15일 을지로에 위치한 삼성화재빌딩에서 ESCO협회(회장 최석곤) 임직원 및 삼성에버랜드 임직원들로부터 ESCO협회 및 삼성에버랜드의 기업 활동에 대해 소개받았다.

ESCO협회의 최석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는 ESCO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가까운 나라인 만큼 향후 ESCO사업에 있어 상호 협력할 것은 시간을 갖고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 대표인 오징웬 주임은 “오늘은 한국의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 및 한국에서의 ESCO사업 현황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많이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방문단은 주로 에너지절감액의 산출기준 및 실용화 기술에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도대체 몇 %의 이익이 발생하길래 정부의 돈을 가져다 쓰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아직 중국에서는 ESCO사업의 개념이 명확히 자리잡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박이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ESCO사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중국이 ESCO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기술, 시공 모두를 ESCO기업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중국측에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가 진단을 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론’으로 ESCO 사업을 설명해 중국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주)EPS KOREA의 오자현사장이 중국 방문단에게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

한편 이튿날 EPCS코리아사 방문에서 오자현 사장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회사를 소개했다. 오사장은 또 “향후 온실가스감축 문제와 관련 UN이 추산한 국제 환경시장의 규모는 100억 불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EPCS코리아는 한국 내에서 환경분야의 가장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징원 주임은 “중국도 온실가스감축 협약을 최근 체결,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의 환경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방문단은 이 자리에서 특히 한전이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와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유와 폐열회수 사례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에서는 연돌 배가스가 600℃를 넘으면 규제대상이며 200℃까지 낮출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는 소개도 덧붙여졌다.

## Mini Interview

### 주정부마다 1개씩 ESCO설립 예정

#### ▶중국에서의 ESCO 현황은 어떠한가?

중국에서 ESCO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시작되었다. 3개의 ESCO기업이 베이징, 요녕성, 산둥성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모두 100% 정부출연기관이다. 모두 정부에 의해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운영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 국영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마인드는 민간기업들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는 변화하는 경제체제 하에서 국영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SCO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다.



오징원(吳景元) 주임

북경시 경제위원회 에너지절약판공실

#### ▶이번 방한의 목적은 무엇인가?

베이징ESCO의 예를 들면, 베이징ESCO는 올해 조영, 공장 노후설비 개체, 폐열회수 이용 등에 많은 투자를 실시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ESCO사업을 먼저 시작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기 위해 이번에 방한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앞선 노하우와 기술적 경험 등을 충분히 배워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 ▶조금 전 베이징ESCO의 사례를 들었는데 베이징ESCO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중국에서 ESCO 자금은 세계은행(BRD)의 도움을 받고 있다. 베이징ESCO는 97년과 98년 2년간 투자금액이 3천만위엔화 (한화 약 35억원) 정도이다. 에너지절감효과는 15% 정도의 성과를 얻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중국의 ESCO사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에서는 ESCO기업이 진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ESCO기업이 투자해서 이익을 환산하는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진단과 시공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ESCO는 진단회사가 달라야 하고 시공회사 또한 다른 회사이어야 가능하다. 즉, 제3의 기업이 아니면 안된다.

#### ▶앞으로 중국정부의 ESCO 정책은 무엇인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중국도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 ESCO사업은 이 사업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감안,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현재 3개로 되어있는 ESCO기업의 수를 주정부마다 1개씩 설립할 예정으로 있다.

#### ▶결론으로 한국과 중국이 ESCO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있다면 어느 분야에서 가능하겠는가?

한국의 ESCO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먼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중국보다 4년 먼저 시작했으니 중국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ESCO에 있어서는 ‘兄弟之間’ 같은 생각이 든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